

#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신학박사 조 덕운

[찬송가 453 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맘에 교훈 되도다
4.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 하도다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난 며칠 동안 내 마음에는 이 찬송가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노래하면서 작사자인 Elisa Edmunds Hewitt 을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19 세기 미국 필라델피아의 초등학교 교사이었는데, 척추 장애로 인하여 수년 동안 석고 캐스트에 고정되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심히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은 찬송가 작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깊은 영적 묵상을 통하여 여러 찬송가들을 작사하였습니다 (217 장, 313 장, 370 장, 428 장, 453 장, 539 장 등). 위의 찬송가는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그분의 개인적 염원을 솔직히 표현함으로써 많은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받아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절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대화하고, 동행하였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로 와서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고 가르치시면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매우 가깝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1 서 1:1-3]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2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 쓰기를 자신이 직접 ‘생명의 말씀’ 되신 주 예수님을 자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모든 행동 거지와 심령을 자세히 살펴 보았고, 자신의 손으로 그의 신체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눈 밀접한 교제를 성도들도 또한 성령을 통하여 나누기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이와 같이 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교제를 나누었던 경험을 성도들과

불신자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소개함으로써 그들과 이 매우 고귀한 교제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통하여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 이후의 모든 전도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배의 전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동일한 교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밀접한 교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만일 전도자나 목회자가 이와 같은 개인적 교제의 경험이 없이 오직 신학교에서 배운 학문적인 지식만으로 말씀을 전파하려 한다면 그의 말씀에는 생명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목회자나 성도가 그들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 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기에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참 의미를 배우기를 열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시어 밀접한 교제를 허락하시어서 그 결과로 풍성한 영적 축복과 깨달음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1.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개인에게 배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두 여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여인은 일곱 마귀에 사로 잡혔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자유의 몸이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두번째 여인은 베다니 고을의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여겨집니다. 이분들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가족에게 배풀어주신 매우 크고 넓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써 값비싼 향유를 아낌 없이 예수님의 몸에 부어서 나타내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과거 처지가 어떤 상태이었던지 잘 알고 있었기에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영생을 주신 주 예수님께 그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매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써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충실히 이루셨습니다. 매일 아버지께 그날 당할 경험에 대하여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배움으로써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5]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아버지’로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간절히 찾은 대표적인 구약 시대의 신자는 다윗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슴이 아침 일찍 맑은 물이 있는 샘으로 가는 일과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42:1-2] 오 [하나님] 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 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자녀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하셨고, 다윗을 일컬어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행 13:22]’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신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신의 ‘친구들’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흔히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면서 친한 친구에게는 할말 못할 말 없이 속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구로서 공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친구로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속내 이야기를 드러내고 한다면, 그분께서도 하늘 나라의 비밀과 구원의 진리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후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께서 나에게 배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쓰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닫게 되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속에 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16-19]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17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19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 모두 이 찬송가의 말씀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매일 주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 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전에 알지 못했던 풍성한 영적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http://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에 감사합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15

Or Paypal to [dwcho4771@gmail.com](mailto:dwcho4771@gmail.com)

한국: Shinhan Bank 110-008-655930 [조덕운]